

지역 소식통

부안군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청렴협력체 회의

청명하며 화창한 아의 행사... 부안군문화재단은 지난 27일 (재)부안군문화재단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한 부안 만들기 실천 방안에 대한 회의를 실시했다.

문화예술과와 (재)부안군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부안 지역의 반부패·청렴활동을 위한 소통·협업, 공익 우선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 반부패 청렴 업무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 캠페인 5無 운동(불친절, 갑질관행, 부당지시, 금품수수, 항응접대) 실천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부패·공익신고 요령과 신고자 보호, 보상 등에 대한 토의를 통해 청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신뢰감 있는 청렴 문화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729필지에 대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안군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라미 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관리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부안=김석진기자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

심덕섭 고창군수, "삼성전자 등의 투자유치로 지역 산업생태계의 판도 바꿀 것"

심덕섭 고창군수가 '민선 8기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직접 무대에 올라 PT를 발표하며 "삼성전자 등의 투자유치로 지역 산업생태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8기 들어 주지택, 삼성전자(주), 주에스비푸드 등 3개 기업 유치를 성공시켰다. 이를 통해 7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창신용협동조합 기준 45%의 분양률을 보이며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세계 초일류 대기업 '삼성전자'는 신원리사 18만㎡에 3000억원 투자해 스마트허브단지를 구축한다. 민선 출범 이후 고창군의 기업유치 사례(관광 제외)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종합물류센터(CDC) 이전 등을 추진하며 권역별 최첨단 자동차 시설이 구축된



물류센터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창 스마트허브단지의 경우 투자규모와 건설과정을 따져 볼 때 생산유발효과 304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314억원, 고용유발 효과 2450명으로 분석(전북연구원)됐다.

또한 지택은 통신소자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로 신원리사 3만8000㎡(1만평)에 생산설비 15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0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에스비푸드(울리고당·물엿 제조) 역시 고추종합유동센터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설비 4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년간 총 2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날 설명회에선 고창군이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친환경·미래첨단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창=김영식기자

제34회 정읍시문화제, 성황리에 마무리

부도상 시상·축하공연·KBS 전국노래자랑 등 볼거리 풍성

지난 28일과 29일 정읍시문화공원에서 개최된 제34회 정읍시문화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읍시문화제는 행사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상이 된 백제여인의 송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기리는 문화축제다.



달님은 알고 있는 천년의 기다림, 그리고 사랑!

28일 오전 채수 의례와 정읍사여인제례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정읍시문화제는 시립예술단 공연, 부도상(정금례 시) 시상과 함께 경관조형 점등식,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한 29일에는 한국가요촌 달하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진행, 오후 6시에는 정읍사가요제가 정읍시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돼 흥을 더했다.

이번 정읍사가요제는 전국에서 130여 명이 신청해 예심을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 진출 10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이날 10개 팀의 경연 결과 정세영 씨가 한영애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시상금 300만원과 전북가수협회 인증서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남권 통합운영 협약식 개최

정읍시가 서남권 어린이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서남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 4개 시·군 사례관리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협약식을 30일 진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자치단체간 분담금납부로 위탁관리 해왔다. 정읍시 서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지역 피해아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촘촘히 보호하면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읍시 북면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내

년 1월부터 사례관리 598건에 대한 보호·상담치료와 교육, 아동학대에방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아동 보호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동안 남부안 소생활동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부안 캠프스쿨'을 진행했다.

'농촌 부안'도 매력있다

부안군, 작은 학교 살리기 '남부안 캠프스쿨' 추진

부안군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동안 남부안 소생활동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부안 캠프스쿨'을 진행했다.

남부안 소생활동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의 주인과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 필요가 반영된 지역의제를 발굴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공모에 선정되어 남부안 소생활동활성화 추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남부안 캠프스쿨은 도시 학생에게 정감있는 시골을 제공하고 남부안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남부안 캠프스쿨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7가구, 20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자체 R&D 7개 연구 착수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는 첫번째 자체 공모 방식 R&D, 7개 과제의 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자체 R&D과제 내부공모를 진행해 19건의 연구과제를 발굴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7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연구개발비를 포함 총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자체 R&D과제의 연구사업 분야는 크게 △제품·상품 및 소재 개발, △정책개발 분야 등이다. 자체 R&D과제 심의위원회의 주요 평가기준은 시장 진입 및 기술이전 가능성 및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전북도·고창군) 제안 수용 가능성, 정책타당성 등이었다. 이번엔 처음 진행되는 자체 R&D과제의 연구기간은 2024년 상반기까지 약 5~8개월 동안 진행된다. 향후 자체 R&D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은 고창군 지역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 할 예정이다.

연구소 이사장(심덕섭 군수)은 "이번 산업화를 위한 자체 R&D과제를 시작으로 연구소가 고창의 농·식품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제품개발로 선도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crimes.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text encouraging reporting. Key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and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